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2
o 간사(박성준) 인사	1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
2.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는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할 큰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역할 수행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조속히 함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으로 하여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국민들께서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쟁기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고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 오른쪽에 계신 박성준 수석부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수석부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기의 국면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층적으로 모든 위기가 다 중첩적으로 겹쳐진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정부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견제의 기능으로서 입법부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회운영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국가주요기관들, 특히 인권위원회라든가 또 국회사무처와 관련된, 상임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유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 위원입니다.

시급하게 논의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지금 운영위도 사실상 비어 있는 자리를 보아하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방금 박성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지금 점검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민생뿐만 아니라,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는 이상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남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여해서 정상 가동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이번 국회는 제때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또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 자리에 여당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야당하고 같이 협상도 하고 논의도하면서 뭔가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채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통령의 순방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방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순방에서의 예산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 특히나 경호처·비서실·안보실 다 협의를 통해서, 외교부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순방 일정들을 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를 운영하다 보면 늘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 없이 위원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늘 답답한 마음인데요. 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사람이 나오든지 최소한 이번 운영위만큼은 둘 중에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좀 생산성 있는, 실질적인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운영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상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고 한편으로는 참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시작은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국방부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 기능에 사실 어떤 도움이 됐는지,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았는지, 국민의 이해는 충분히 구했는지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과의 불통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시작부터 지금 까지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차분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한 시민분께서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회다운 국회를 꼭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출근한 첫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운영위원회는 두 가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시민께서 당부하신 대로 국회다운 국회를 만드는 그러한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선임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출석기관과 피감기관의 자리에 앉게 될 대통령실을 비롯한 많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함께해야 할 그 기관들의 국정 운영 방향·기조를 제대로 바꾸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년 만에 운영위원회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9대에 운영위원이었고 또 20대·21대에는 저 출석기관의 자리에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서 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참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 앉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지하철 시민의 당부대로 국민이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승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운영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 그리고 헌법 시스템의 붕괴, 이로 시작돼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지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실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단 4일 만에 국방부 일개 사인, 지금은 경호처장으로 있는 일개 사인이 들어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이런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명확히 심판해야 됩니다. 운영위에서 따져 물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국회사무처도 있지만, 채 해병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한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따져 물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미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회가 열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은 멈추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반들어서 일다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했지요. 그 이후에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은 채 해병 1주기입니다.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은 말소되어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위한 방탄 보이콧을 자처하면서 채 해병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요 며칠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기자들에게 기레기, 쓰레기 기사 쓴다, 인권단체들에게는 인권 장사치라는 막말로 인권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원들이 이충상·김용원 위원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입니다.

더군다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사망조사 입회권을 가진 유일한 군 경제 기능인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4월 채 해병 사건의 국방부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후에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고 그 과정에서 군 사고 유가족들을 수사 의뢰를 하지를 않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채 해병 사건 진실 은폐에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들과 몇 개월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도 반인권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 발언이 반인권인지 혐오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의 언행을 마구잡이로 해 온 위원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긴급한 인권 현안을 다루지 않고 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초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인권위원회를 상습적으로 과행시키는 행동을 국회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상임위원의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두 상임위원을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서 반인권적인 언행들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퇴까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 인권, 민주주의, 모든 현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고속으로 뒤집어 놓은 것을, 국정의 시간들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할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킵시다. 운영위원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가 좀 나라답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군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윤종군 위원 첫 자리라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윤건영 위원님이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안성맞춤 국회의원 경기도 안성 윤종군입니다.

막중한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2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인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듯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복귀했습니다. 엄중히 따지고 묻고 질책하겠습니다.

두 사람만 진실을 밝히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수년째 국정 혼란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잘못 엄중히 따지고 묻고 질책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설비서관실에서 일했는데요.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일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는 말과 글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나라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 분열의 언어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좌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참모들도, 그 잘못도 엄중히 묻고 따지고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인사를 짧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여당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국회운영위원장장을 달라고 폐를 쓰면서 국회를 통째로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일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세 번의 통화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과의 전화를 끊은 직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직전 통화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재영 목사는 명품백과 각종 선물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씨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런 청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청탁 이후 관계 부처 직원을 연결하려는 노력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땅이 개발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는 왜 2010년에 이 땅을 매입했는지, 김건희 여사는 한때 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땅 매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 시추도 시작하지 않은 석유·가스전 사업을 전례 없이 직접 브리핑하고 추정 매장량까지 언급하며 홍보했는데 바닥을 친 국정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익이 먼저인지 지지율이 먼저인지, 다음 회의 때부

터 이런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2대 국회 운영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서야 행정부가 바로 섭니다. 지금 많은 정부 정책의 난맥이 대통령실에서 비롯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운영위원회는 바로 그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3주일이나 되었는데 원 구성이 늦어져 오늘에야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 첫 회의에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원회는 보이콧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 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원회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 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 방해 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당 특별위원회 명목으로 밀실에서 회의록도 없이 정부 부처를 불러서 회의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회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는 일 잘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원하십니다. 시작부터 반쪽짜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민의를 받들어 지금이라도 원 구성에 협력해 주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을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위원입니다.

현 대한민국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냈다는 이유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최소 수천억 원이 드는 국책사업을 객관적 검증도 없이 정체불명의 업체에 맡겼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육설, 막말, 갑질 등 일부 위원의 반인권 행태로 과행 중입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망가진 국정 운영 체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20일째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법안 논의는커녕 상임위 구성부터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셀프 중단,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전쟁 중에도 국정 운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힘은 용산의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고 행정부 들러리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힘은 국회에 즉시 복귀하여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운영위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법사위원장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사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장은 넘겨 달라고 뜙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경의 이유는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많은 의혹, 혐의로부터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방탄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를 볼모로 잡고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잡음 마케팅을 하면서 국회가 일하지 못하게 자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운영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 주는 국정 난맥상을 막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 정진욱은 유능하게 일하고 용기 있게 싸우면서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추미애입니다.

운영위에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정 농단 사태를 넘어서서 국정 파탄 사태에 빠져 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절박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거짓말을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궤변을 남발하면서 옹호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들러싼 국정 개입을, 또 뇌물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국민권익위마저도 국민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궤변에 기가 차고 놀라서 ‘여사권익위가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대통령실이 숨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출석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권익위도 왜 그러했는지 국민께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은 산업부를 제치고 대통령 스스로 ‘동해에 매장량 140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유전탐사 과학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짓말을…… 저는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은 후보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온갖 법률을 위반하고 검찰 조직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유화해 놓고도 그 당당한 거짓말 앞에 국민들이 속았고 드디어 검찰 쿠데타는 성공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한 국가 예산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석유시추사업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에서 100m 높이의 부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양호한 저류층, 저류층이라고 함은 석유가 생산되는 근원암에서 그 석유가 흘러나와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그 양호한 저류층이 서울시 면적에다가 100m 높이로 있을 부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동해에 있다라고 할 때 140억 배럴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드사이드사가 2014년에도 한번 3D로 탐사를 했고요. 계속해서 3D 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구조일 확률이 별로 없어서 철수를 한 것인데 왜 갑자기 잠재구조가 유망구조가 됐는지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근거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사기업이, 석유재벌 회사들이 그들의 위험비용으로,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성공불용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국민에게 위험 지경으로 끌고 가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근거로 나라의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도 당당하고, 옹호하는 국가기관이 모두 종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거짓말을 옹호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면서 대통령실과 우리 운영위 소관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몰염치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저희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가 야당이 운영위원회를 맡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께서 남은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타협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양보하여 가지고 조속히 원 구성이 완료되어서 여당 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동료인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의 공직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분들, 우리가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시고 또 그 역할들이 존중받고 적절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데에도 저는 애써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언론인들이 권력의 애완견이라거나 기례기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는 언론인들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개혁신당부터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을 존중하면서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국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당연직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출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 오른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실 관련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선출될 간사님께서 절차대로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현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특히 자녀 로스쿨 진학 및 김앤장 채용 특혜 의혹 받고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품 가방 받고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 두 사람 반드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이 외국인에게 선물받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방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방이 언제 기록물로 접수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양주,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및 사용 여부, 보관 상태 다 확인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관됐는지 시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앞으로 선출되실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 불출석할 경우 현장 방문조사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모두 거부한다, 청문회…… 김건희 여사 종합 청문회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인권위가 채용절차 마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하지 않아 장애차별조사1과장 자

리가 장시간 공석입니다. 인권위 업무를 대통령실이 무력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와 대통령실 모두 한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선출되실 간사님께서 원칙대로 빠르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선이 첫 번째 전체회의부터 지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과방위에서 방송 4법 상임위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석하면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느라 늦었다는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운영위의 피감기관 수를 보니까 8개더라고요. 가장 적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께 ‘이채양명주’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사상 최초로 과반이 넘는, 과반인 야당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채양명주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국민 뜻, 유권자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채양명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전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의혹 사안이 또 추가가 됐고요. 또 왜 그렇게 천공 관련된 의혹은 잣아들지 않는지,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 무통주사, 상속세 또 유전개발 문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 천공이 등장하는 이상한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될 일일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규명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국민께서 처해 있는 이 환경 많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가 정부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견제할 수 있겠지만 운영위 특징이라면 국정기조 전반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힘이 있고 또 그럴 책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하고 또 뛰어서 해결책을 찾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수석전문위원과 관계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간단히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성훈 입법심의관입니다.

그리고 서재만 행정실장, 입법조사관과 주무관들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39분)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성준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성준) 인사

(11시40분)

○위원장 박찬대 간사로 선임된 박성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 간사입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님들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잘 이를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의사일정들 잘 잡아서 충분하게,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히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돋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2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상세한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소관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입니

다.

업무보고 일시는 국회 소속기관, 국회미래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 오전 11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3시로 하며 각 기관으로부터 기관별 업무 현황과 2024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소관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국회 소관 기관장, 국가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은 참석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국회 존중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위원회는 법안 등을 심사하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왔는데요.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교섭단체 간 협의해 주시고 특히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노종면 박성준 박수현 박찬대 부승찬 서미화 신장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광현 정을호 정진우 천하람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입법심의관 주성훈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노종면	박성준		
박수현	박찬대	부승찬	서미화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광현	정을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김소희	김종양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2024. 6. 10.
배준영	이종욱	정성국	조지연	추경호	국민의힘	
신장식 천하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2024. 6. 1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이상 13건 6월 11일 회부됨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2024. 6. 11. 추경호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0280)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2024. 6. 11.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3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1)

이상 3건 6월 1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9)

이상 3건 6월 14일 회부됨